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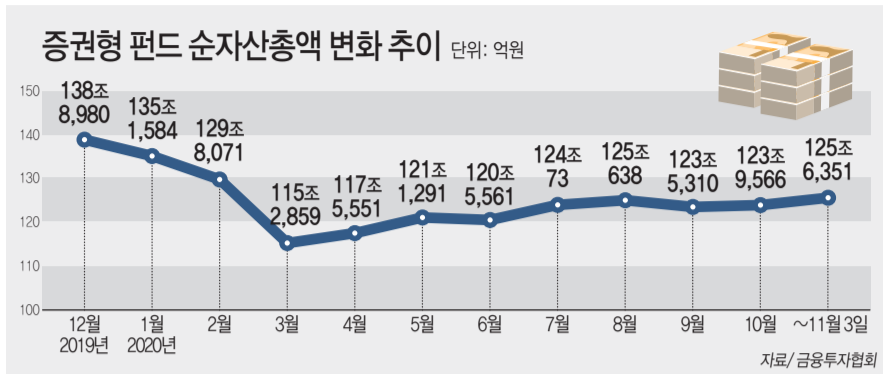
증권형 펀드 흥행... 전자·IT 등 장기적 성장분야 주목해야

국내 증권형 펀드 자금 125조
직관·단순한 구조에 자금 몰려

미래에셋운용 '코어테크펀드'
반도체·5G통신 등 IT회사 투자
누적 수익률 33.44% 달해

증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운용구조를 가진 펀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이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공모펀드 순자산총액은 288조 810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255조 2183억원) 대비 13.16%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2월 증권형 펀드 순자산총액은 138조 898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 3월 115조 2859억원으로 17%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어 이달 3일 기준 국내 증권형 펀드 자금은 125조 6351억원을 기록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증권형 펀드 자금 완만한 증가

50% 이상의 자금을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으로 나뉜다. 주식 비율이 60% 이상이면 주식형, 채권 비율이 60% 이상이면 채권형, 각각 50% 이상이면 주식혼합형 또는 채권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이들 중 비교적 직관적이고 단순한 운용구조를 가진 국내 증권형 펀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BNPP파리바자산운용 '삼성전자알파채권혼합형펀드' 설

정액 2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 설정액 2000억원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글로벌5G차세대네트워크펀드(H/UH)' 설정액 1000억원 등이 몰렸다. 증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 높아지고,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증권형 펀드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신한BNPP운용의 '삼성전자알파채권혼합형펀드'는 지난 9월 설정액 1000억원 돌파에 이어 두 달만에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설정액 상승을

보여줬다. 이 펀드는 펀드명에서 알 수 있듯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의 투자 비율은 시가총액 비중 내에서 시장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실제로 펀드 설정 시점보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알파채권혼합형펀드는 설정 이후 3%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한BNPP운용 관계자는 "해당 펀드의 경우 수익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그 이후 관심을 가지며 유입이 늘어났다"며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라는 단순한 펀드 운용전략과 성과도 괜찮아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운용전략이 장점"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주로 2차전자, 반도체, 5G 통신 장비 등 IT 관련 회사에 투자한다. 주요 종목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LG화학, 케이엠더블유 등 우량 종

목에 투자해 지난해 10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33.44%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전자, IT 산업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으로 부각되는 산업들"이라며 "코어테크(Core Tech·핵심기술)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2월 설정된 키움자산운용의 '키움글로벌5G차세대네트워크펀드(H/UH)'는 설정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에만 7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 유입됐는데, 5G라는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자금 유입이 됐던 유형은 IT펀드, 헬스케어펀드, 녹색성장펀드, 삼성그룹주펀드 등이다"라며 "국내주식형펀드 중에서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테마펀드로 투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LH,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 파크 추진

한수원-KDCC와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전력공급 위한 센터 조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서울 지역본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KHNP) 및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와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 파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파크 공동 개발 ▲집적단지 내 에너지 효율화 기술협력 ▲폐열 등의 자원재활용 기술협력 ▲데이터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전·후방 연관 산업 유치 및 지원 협력 등으로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공급을 위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기반의 집적화 된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이번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 파크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연관 산업 클러스터로 구성된다. 또한, 매년 20%씩 증가하는 데이터



변창흠 LH 사장(가운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첫번째),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회장 등과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시장 성장률에 맞춰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와 함께, 시중 부동산 자금 유입을 위한 국민 공모형 리츠 등 다양한 사업방안 또한 마련한다.

한편, LH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미래도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함으로써 데이터센터 파크의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스마트시티 등 향후 LH가 조성하는 사업지구에 확대 적용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형 신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등 중장

기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국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이번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한 디지털·그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수도권 중심 전국 4579가구 청약 접수

분양캘린더

의정부·안양 등서 1332가구
건본주택 개관도 5곳 준비

최근 분양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지난 주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S5·S1) 동시분양과 하남 갑 일지구 1순위에서만 60여만 명이 몰리며,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쳤다.

11월 둘째 주 역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9개 사업장 4579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의정부와 안양, 파주 김포



'대구테크노폴리스 이미지 더센터럴' 조감도. /리얼투데이

등에서 1332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건본주택 개관도 5곳이나 준비 중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요진 와이하우스'와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이미지 더센터럴' 등이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대신증권, 美주식 프리마켓 서비스 오픈

정규시작 2시간30분 전부터 거래

대신증권이 미국 정규시장 전에도 미국주식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미국 정규시장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부터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미국주식 프리마켓 서비스'를 오픈한다.

프리마켓(Pre-Market·국내 기준 오후 9시~11시 30분)을 이용하면 기존 미국 정규시장 시작 전에 2시간 30분을 추가해 거래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신증권 비대면 또는 전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매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8일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미국주식 고객들은 글로벌 이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美투자 ETF 2종, 보수 인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미국나스닥100 ETF(상장지수펀드)'와 'TIGER미국S&P500 ETF'의 보수를 인하한다.

TIGER미국나스닥100 ETF의 총보수는 연 0.49%에서 0.07%로, TIGER미국S&P500 ETF는 연 0.30%에서 0.07%로 오는 12일부터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ETF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이들 ETF가 연금 등 장기 포트폴리오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미래에셋운용은 설명했다.

TIGER미국나스닥100ETF는 NASDAQ 100을 기초지수로 한다. NASDAQ 100 Index는 미국 나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도소매무역, 생명공학 등의 업종대표주 100개로 구성된다.

TIGER미국S&P500ETF는 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에 투자한다. 기초지수인 S&P500 인덱스(Index)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전체 시총의 약 80%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포함해 미국 경제의 전반적

인 상황을 반영한다. 이들 ETF는 완전복제 전략을 통해 기초지수와와의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운용하며 별도의 환헤지는 실시하지 않는다.

권오성 미래에셋운용 ETF마케팅부 문 상무는 8일 "시장 대표 지수에 대한 ETF 저보수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를 비롯해 많은 글로벌 ETF 운용사들이 추진하고 있다"며 "TIGER ETF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수 추종이 가능하도록 대표지수형 상품들은 저렴한 보수를 유지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